01 효(孝)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① 斑衣之戱　② 斷機之戒
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

01 한문－한자와 한자어－한자성어

정답 ②

해설

①③④는 효와 관계된 말이지만, ②는 면학을 권계하는 말이다.

심화

① 斑衣之戱(반의지희):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②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후한서≫의 에 나오는 것으로, 맹자가 수학(修學) 도중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그를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③ 陸績懷橘(육적회귤): 오나라 육적이 귤을 품속에 품는다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02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① 동의 관계(synonymy)－근심:시름
② 반의 관계(antonymy)－볼록:오목
③ 상하 관계(hyponymy)－할아버지:손자
④ 부분 관계(meronymy)－코:얼굴

02 비문학－비문학의 여러 이론－문맥적 의미－어휘의 의미 관계

정답 ③

해설

③ 상하 관계는 상위 개념의 속성을 하위 개념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하 관계가 아니다.

심화

① '근심'과 '시름'은 교체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의 관계이다.
② '볼록'과 '오목'은 의미가 대조적이므로, 반의 관계이다.
④ '코'는 '얼굴'의 부분이므로 '부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03 다음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 '맡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03 문법－현대문법－음운－음운변화

정답 ①

해설

'집'과 '일'이 결합할 때, 'ㄴ첨가'와 '비음화'가 진행된다.
'ㄴ첨가'는 '첨가', '비음화'는 교체 현상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심화

㉡ 닭만→[당만]: 탈락과 교체가 적용되었다.
㉢ 뜻하다→[뜨타다]: 끝소리규칙과 자음 축약이 적용되었다.
㉣ 맡는→[만는]: 끝소리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0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19. 서울특별시 7급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04 문법－현대문법－문장－문장성분

정답 ②

해설
②는 부사, 나머지는 관형어이다.

심화
① 관형격조사 '의'가 붙었으므로 '어머니의'는 관형어이다.
② 부사 '아주'는 부사어이다.
③ '바로'는 의미상 관형어이다.
④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었으므로 '예쁜'은 관형어이다.

05 다음을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 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주체, －객체, +상대)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주체, －객체, －상대)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주체, +객체, +상대)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주체, －객체, +상대)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주체, +객체, +상대)

05 문법－국어생활－높임법

정답 ②

해설
② '께'와 '드렸다'를 통해 객체를 높였다.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라고 분석해야 한다.

심화
① ③ '께서'와 '시'를 통해 주체를 높였다.
④ '께서'와 '시'를 통해 주체를 높였고,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를 높였다.

06 다음은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
>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 술빚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 인생 (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 물 위로 꽁지를 닿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
> 내 전하고픈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① 오십　② 육십
③ 칠십　④ 팔십

06 한문－한문법과 한문－한시

정답 ③

해설
두보는 '曲江(곡강)'이라는 한시에서, '人生七十古來稀(인생칠십고래희)'라고 하였다. 즉 사람이 일흔까지 산다는 것이 예로부터 드물게 들려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칠십'이 들어가야 한다.

심화
이 시의 원시는 다음과 같다.
朝回日日典春衣(조회일일전춘의)

每日江頭盡醉歸(매일강두진취귀)
酒債尋常行處有(주채심상행처유)
人生七十古來稀(인생칠십고래희)
穿花蛺蝶深深見(천화협접심심견)
點水蜻蜓款款飛(점수청정관관비)
傳語風光共流轉(전어풍광공류전)
暫時相賞莫相違(잠시상상막상위)

07 다음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 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 이다.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07 비문학－주제와 소재－주제의 파악

정답 ③

해설

심화
①
②
③
④

08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① 파김치　　② 짜임새
③ 주름살　　④ 지름길

08 문법－현대문법－형태소

정답 ②

해설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다'는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①~④ 중 ②가 형태소 개수가 4개로 가장 많다.

심화
① 파+김치: 2개
② 짜(다)+이+ㅁ+새: 4개
③ 줄+음+살: 3개
④ 지르(다)+ㅁ+길: 3개

09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① 첫술에 배부르랴. • 19. 서울특별시 7급
② 내 코가 석 자다.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09 한문 – 한문법과 한문장 – 한문장

정답 ④

해설

문제에서 제시한 "欲速則不達(욕속즉부달), 見小利則大事不成(견소리즉대사불성)'은 '빠르고자 한다면 도달할 수 없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한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한문과 관련되는 속담은 ④이다. ④는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심화

① 첫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말
② 내 코가 석 자다.: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

10 다음 시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① 사소함　② 괴로움
③ 기다림　④ 생각함

10 문학 – 현대문학 – 현대시 – 표현기법

정답 ①

해설

이 작품에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주된 수사법은 반어법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어쩌면 삶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화자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에 해당한다.

심화

반어법: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풍자나 위트, 역설 따위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색하다는 뜻으로 쓴 '참 푸지게도 준다!' 따위이다.

11 다음 글과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
>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
>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②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③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11 문학 – 현대문학 – 문학일반 – 현대문학사

정답 ④

해설

지문의 시는 구상의 「초토의 시」이다. 이 시는 이 시는 시인이 6·25 전쟁 때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직접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쓴 15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작품이다.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조국의 비극적 현실을 따뜻한 인간애와 굳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④의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도 6·25 전쟁을 배경으로 쓴 작품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를 '몸에 박힌 채 빼지 못하는 유리 조각과 같은 것'으로 형상화하여 전쟁을 겪은 젊은이들의 정신적 방황과 그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화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작가가 1964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대인을 상징하는 주인공인 남자 '윤희중'이 무진에 머무른 2박 3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②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산업화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애환과 인간적 유대감을 그리고 있다.
③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 가뭄으로 인해 전기를 도둑질하고 저수지 물을 훔쳐야만 하는 농민들의 삶과 민방위 교육을 통해 드러나는 농촌 정책의 허구성을 그려내고 있다.

12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① 손쉽다　② 맛나다
③ 시름없다　④ 남다르다

12 문법 – 현대문법 – 단어

정답 ④

해설

④는 '부사어+서술어' 구조이고, 나머지는 '주어+서술어' 구조이다.

심화

① 손(이)+쉽다: 어떤 것을 다루거나 어떤 일을 하기가 퍽 쉽다.
② 맛(이)+나다
③ 시름(이)+없다
④ 남(과)+다르다

13 다음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 이화우(梨花雨) 흣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ᄒᆞᆫ 님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ᄂᆞᆫ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ᄒᆞ노매

① ㉮–㉰–㉯–㉱　② ㉮–㉰–㉱–㉯
③ ㉰–㉮–㉯–㉱　④ ㉰–㉯–㉮–㉱

13 문학 – 고전문학 – 고전문학사

정답 ④

해설

㉮~㉱의 창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고구려 유리왕 때
㉯ 통일신라 경덕왕 때

㉮ 고려시대 인종
㉱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심화

㉮ 정지상의 「송인(送人)」
㉯ 월명사의 「제망매가(祭亡妹歌)」
㉰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
㉱ 계랑(이매창)의 시조

14 다음을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 ㉮ 알-: 알+는 → [아:는]
> ㉯ 안-: 안+고 → [안:꼬]
> ㉰ 아름답-: 아름답+은 → [아름다운]
> ㉱ 먹- :먹+는 → [멍는]

① ㉮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② ㉯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③ ㉰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④ ㉱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14 문법 – 현대문법 – 음운 – 음운변동

정답 ①

해설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적 교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
㉡ 비자동적 교체: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
① 'ㄹ' 탈락은 결정적 변동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심화

② 유성음으로 끝난 실질 형태소와 무성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났을 때에는 된소리되기가 진행되기도 하고 진행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③ 불규칙 활용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는 ㅂ불규칙 활용의 사례이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④ ㉱는 비음화의 사례이다. 비음화는 결정적 변동에 해당하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꿴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 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나뇨."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15 문학 – 고전문학 – 고대수필 –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
정답 ①
해설
① 서술자는 '잘게 뜨며 굵게 박아'라는 구절로 볼 때 바늘임을 알 수 있다.
심화
② 인물들은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모든 일에 두루 능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④ '교두각시'는 가위를 의인화한 것이다.

16 다음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 내가 책을 읽었다.
> ㉯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 ㉰ 우리가 산을 봅니다.
> ㉱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16 문법 – 현대문법 – 문장 – 사동과 피동
정답 ②
해설
② ㉱의 주어 자리에 있는 '산'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심화
① 사동사와 피동사는 각각 사동접사와 피동접사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파생어가 된다.
③ ㉯의 부사어 '나에게'는 ㉮에서 주어가 되고, ㉱의 부사어 '우리에게'는 ㉰에서 주어가 된다.
④ ㉮가 ㉯로 전환되면 서술어 자릿수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한다.

17 다음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 놈:'사람평칭'→'남자의 비칭'
> ㉯ 겨레: '종친, 친척'→'민족, 동족'
> ㉰ 아침밥>아침
> ㉱ 맛비>장맛비

①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②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③ ㉰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④ ㉱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17 문법 – 현대문법 – 언어와 국어 – 국어
정답 ④

해설

'맛비'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장맛비'는 '장마 때에 오는 비'를 뜻한다. 즉 '맛비'는 '날씨'를 뜻하고 '장맛비'는 '비'를 뜻하므로 둘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④는 ㉣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심화

① 놈: 일반적인 사람(남성+여성)을 가리키다가 남자의 낮춤말로 바뀌었으므로 의미 축소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겨레: 민족이나 동족은 종친이나 친척보다 넓은 의미이므로 의미가 확장(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아침밥'에서 '밥'을 생략하고 '아침'으로만 써도 문맥상 '아침밥'의 의미로 쓰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설명이다.

18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19. 서울특별시 7급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18 문법 – 현대문법 – 품사 – 조사

정답 ③

해설

③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조사이다. 즉 ③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무척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심화

① 비교 부사격 조사
② ④ 대상 부사격 조사

1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자내 샹해 ㉠ 날ᄃᆞ려 닐오ᄃᆡ 둘히 머리 셰도록 사다가 ᄒᆞᆷ쯰 죽쟈 ᄒᆞ시더니 엇디ᄒᆞ야 나를 두고 자내 몬져 가 시ᄂᆞᆫ 날ᄒᆞ고 ᄌᆞ식ᄒᆞ며 뉘 긔걸ᄒᆞ야 엇디ᄒᆞ야 살라 ᄒᆞ야 다 더디고 자내 몬져 가시ᄂᆞᆫ고 자내 날 향히 ᄆᆞᅀᆞᆷ엇디 가지며 나ᄂᆞᆫ 자내 ㉡ 향히 ᄆᆞᅀᆞᆷ을 엇디 가지던고 믜양 자내ᄃᆞ려 내 닐오ᄃᆡᄒᆞᆫᄃᆡ 누어셔 이 보소 ᄂᆞᆷ도 우리ᄀᆞ티 서ᄅᆞ 에엿쎄 녀겨 ᄉᆞ랑ᄒᆞ리 ᄂᆞᆷ도 우리 ᄀᆞᄐᆞᆫ가 ᄒᆞ야 자내ᄃᆞ려 니ᄅᆞ더니 엇디 그런 이를싱각디 ㉢ 아녀 나를 ᄇᆞ리고 몬져 가시ᄂᆞᆫ고 자내 ㉣ 여히고 아ᄆᆞ려 내 살 셰 업ᄉᆞ니 수이 자내 ᄒᆞᆫᄃᆡ 가고져 ᄒᆞ니 날 ᄃᆞ려 가소

① ㉠ 나를 따라서
② ㉡ 향하여
③ ㉢ 아니하여
④ ㉣ 여의고

19 문학 – 고전문학 – 고전수필

정답 ①

해설

㉠ '날ᄃᆞ려'의 'ᄃᆞ려'는 대상 부사격조사이다. 따라서 '날ᄃᆞ려'는 '나에게'로 해석해야 한다.

심화

이 글은 조선시대에 안동 사람 이응태의 부인이 쓴 언간(편지)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이르기를 둘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시나요.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시나요.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매일 당신더러 내 말하기를 함께 누워서 여보 남들도 우리 같이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당신더러 말했더니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나요? 당신을 여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살수 없으니

빨리 당신한테 가고자 하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20 다음 글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19. 서울특별시 7급

>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 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 하고 물을 것이다.

	㉠	㉡	㉢
①	플롯(plot)	왜?	그 다음 엔?
②	플롯(plot)	그 다음엔?	왜?
③	테마(theme)	언제?	왜?
④	테마(theme	그 다음엔?	왜?

20 비문학 – 비문학의 여러 이론 – 문맥적 의미

정답 ②

해설

문맥상 ㉠에는 '플롯', ㉡에는 '그 다음엔' ㉢에는 '왜'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소설의 '플롯'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심화

㉠ 소설에서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배열되지만 플롯은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따라서 ㉠에는 플롯이 들어가야 한다.

㉡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므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독자들은 '그 다음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 플롯은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 사건의 서술'이므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독자들은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